



2016 그린 자전거 축제...영산강따라 행복한 '두바퀴' 영산강변을 따라 광주·전남의 가을 정취를 맘껏 즐길 수 있는 '2016 그린(Green) 자전거 축제'가 23일 국
락교 일대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열렸다. 동호인 등 지역민 500여명이 역새 물결 사이를 달리고 있다.

▶관련기사 20·22면

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대선의 해 앞두고 '호남 구애' 나서는데 지역 성장 이끌 '대형 프로젝트'가 없다

국회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...시·도 국고사업 '큰 그림' 그려야

내년 12월 20일 치러지는 제19대 대선
을 앞두고 광주·전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
수 있는 '대형 프로젝트'가 제시돼야 한다
는 지적이다. <관련기사 3면>

16년만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내년 대선
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호남 민심 공략을
위해 국고 예산 자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
있기 때문이다.

당장 야권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
은 호남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번 예산국

회에서 치열한 경쟁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
된다. 민주당은 이번 주 추미에 대표와 김
현미 국회 예결위원장, 윤호중 정책위의
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포진한 '호남비전
위원회' 발족과 함께 당이 책임지는 호남
현안 사업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다.

호남이 존립 기반인 국민의당도 오는 28
일 27기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선출 이후,
예산 국회에서 당이 중점적으로 쟁길 호남
현안 사업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.

서진(西進) 정책에 나서고 있는 새누리
당도 이정현 대표가 총대를 메고 호남 현
안 사업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.

여기에 내년 예산의 키를 잡고 있는 국
회 예결위도 위원장이 전북 출신의 김현미
의원이고 민주당 간사에 순천 출신의 김태
년 의원, 국민의당 간사에 광주의 김동철
의원이 포진하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

환경이 좋다.

하지만,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 신규
사업 가운데 국고가 5000억 원대 넘게 투
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는 단 한 건도 찾아
볼 수 없다.

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등 신규 사업을 억
제하고 있는데다 영남·보수 정권이라는 영
향도 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지와 기
획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. 내년
대선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이 이뤄져
도 정부 차원에서 '밀어주고 지원할 대형 프
로젝트'가 없었던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의
빠이픈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.

반면, 전북도는 '새만금 특별법' 개정 등
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준비에 나서고 있
다는 점에서 광주·전남과 대비된다.

이에 따라, 올해는 정치권을 지렛대 삼
아 국고 지원이 미비한 현안 사업을 챙기
는데 주력하고 대선의 해인 내년을 대비해
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머

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.

10년, 20년 후를 내다보고 호남의 성장
동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
마련,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
로 삼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.

J-프로젝트,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
사업 등 과거 대형 프로젝트의 허와 실을
따져보고 보다 현실성 있고 호남의 미래를
이끌어 갈 탄탄한 사업 구상을 만들어 내
야 한다는 지적이다. 정치권 관계자는 "내
년에는 호남 민심을 놓고 정치권의 파상
공세가 예상된다"며 "지역 정관계가 내년
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미래를 견인할 그랜
드 디자인을 그려내야 한다"고 말했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무등산 수목 누가 훼손했다 ▶6면
무등기 야구 결승 진출팀 확정 ▶18면

쌀값 '마지노선' 13만원대 무너지나

80kg 기준 13만원 이하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못 받을수도

전남을 비롯해 전국 산지 쌀값이 80kg
당 13만원 아래로 떨어질 조짐을 보이면
서 쌀농가에 비상이 걸렸다. 정부는 쌀
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 등 다양
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효용이 없
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.

더욱이 쌀값이 13만원 이하로 떨어지
면 피해를 보는 농가에 주는 변동직불금
을 일부 지급할 수 없는 상황마저 벌이
질 수 있어 농민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
을 요구하고 있다.

23일 농협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
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3만
1808원을 기록했다. 이는 2016년산 햅
쌀에 대한 첫 가격조사인 열흘 전(10월5
일자)과 비교하면, 2268원(1.7%)이나 떨
어진 가격이다.

오는 25일 발표되는 산지 쌀값이 80kg
당 13만원 아래로 추락하면 지난 1995년
이후 20년 만에 13만원대가 무너지는 것
이다.

또 쌀값 13만원대 붕괴는 수확기 평균
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농가에 지
급하는 보조금인 변동직불금이 농업보조
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

로 이어질 수 있다. 수확기(10월~이듬해
1월) 평균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13만
411원 아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규모
가 연간 농업보조총액 한도인 1조4900억
원을 넘어서 일부는 줄 수 없게 된다.

최근 전남지역의 수발아(穗發芽·이삭
에서 싹이 트는 것) 탓에 통계청의 올 쌀
예상 생산량 420만2000t 보다 실제 생산
량이 적을 것으로 보여 쌀값 하락이 한
풀 꺾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문제는
정부 대책 등이 시장에서 전혀 실효를
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.

통상 민간 유통의 경우, 값이 싼 수확
기에 쌀을 사들인 뒤 가격이 오르는 다
음해 6~7월에 시장에 내놓는데 올해는
가격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서 민간 구입
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. 또 올해부
터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팔 수 없
어 지난해 생산된 쌀이 무더기로 시장에
나오면서 한 번 떨어진 가격이 전혀 반
등하지 못하고 있다.

이에 농업전문가들과 농민들은 정부
의 시장격리 물량을 25만t에서 30만t으
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.

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흑산공항 건설 업체 내년 4월께 선정

1336억 규모...내년 하반기 착공

흑산공항 건설공사를 맡을 업체가 내
년 4월께 선정될 예정이다.

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
청은 최근 1336억원 규모 흑산공항 건설
공사를 발주했다. 서울항공청은 다음달
3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을 받아 현장설
명회를 거쳐 내년 4월께 업체를 선정, 내
년 하반기에 착공할 방침이다. 설계와
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단키방식으로 추
진하되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가격을 확
정하고 기술로 업체를 평가하는 '확정가
격 최상설계' 형태로 입찰이 이뤄진다.

이 공사는 2014년 2700억원대 기업도
시 진입로 공사에 이어 전남에서는 규모가
가장 큰 공사 중 하나다. 대기업의 참여,
지역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이 예상되
는 가운데 한진·금호·롯데 등 대형 건설사
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.

흑산공항은 2020년까지 토지 보상비

와 공사비 등 국비 1833억원을 들여 신
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1200m 활주로
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
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된다.

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

Passion [열정], Vision [꿈],
Truth [진리] 로 충만한
기독교명문대학
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!!
입학문의 학부 (062) 605-1114
대학원 (062) 605-1115



생각한다. 반응한다.
지능적으로

The New E-Class. Masterpiece of Intelligence



Mercedes-Benz

신성자동차

신성자동차(주) 광주 전시장
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(화정동) / Tel. 062)226-0001

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
E 300 (배기량: 1,991cc, 공차중량: 1,740kg, 자동9단) 복합연비: 10.8km/ℓ (도시연비: 9.6km/ℓ 고속도로연비: 12.6km/ℓ), 등급: 4등급, 복합CO2 배출량: 161g/km E 300 4MATIC (배기량: 1,991cc, 공차중량: 1,790kg, 자동9단), 복합연비: 10.3km/ℓ (도시연비: 9.3km/ℓ, 고속도로연비: 12km/ℓ), 등급: 4등급, 복합CO2 배출량: 169g/km
※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, 운전 방법,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
※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